



우에노 에이코씨

1927년 11월 9일생

1971년에 미나마타병으로 인정받음.

1958년에 극증(劇症)형 미나마타병으로 남편이 사망. 같은 해, 태아성 미나마타병환자의 아이를 출산했지만, 2살에 사망. 미나마타병 때문에 받아왔던 차별때문에 고통스러웠던 자신의 반생을 이야기함.

1973년, 미나마타병환자의 복지시설 '메이수이엔(明水園)'에 15년간 근무.

1999년 4월부터 미나마타병자료관의 증언인으로 됨.

미나마타시 후쿠로(유도) 재주.

저는,미나마타 만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후쿠로 만의 유도라는 반농반어로 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지역에서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결혼후에도 남편과 함께 둘이서,풍요로운 바다였던 미나마타만에서 고기잡이를 하면서 생활했습니다.

미나마타병의 발생이 정식으로 확인되고, 전염병 괴병으로 떠들썩할 때 1956년에 어부이신 아버지가 갑자기 발병하여, 이듬해, 괴병으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1958년, 결혼 3년만에 아이를가져서 기뻐할 사이도 없이 남편이 갑자기 발병하고 말았습니다. 발광(發狂)하여 빙빙돌기도 하고, 고통스러워 하면서 발병해서 13일만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을 잃고 슬퍼할 사이도없이 남편의 장례식을 차린 6일후에 태어난 딸은,팔다리가 뻗뻗해 있었고, 목도 축 처진채 가누지 못하고 있어,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진단도 하지 않은 채 소아마비라고 하였습니다. 저의 주위에서 잇달아 일어난 괴병의 발생때문에,주위의 사람들이 이상한 눈길로 쳐다보았고 물건을 사러갔을 때에도, 제가 내는 돈은 받지 않으려고 했고, 전염병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딸은, 아무 것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상태에서 어머니인 저를 원망도 하지 않고 죽어갔습니다.

해부되어 가벼워진 딸을 등에 업고 돌아왔던일, 당시 주의로부터 받은 차별,편견의 서러움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미나마타병의 체험자로서 이야기하지만 어디까지 이해해줄 수 있는지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정말 '미나마타병'이라는 공해병은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계속 이야기해 날 것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마음과 마음을 합쳐서 우리들과 함께 미나마타병에 대해 학습하고, 미래에 교훈으로서 계속 남겨질 것을 바랄뿐입니다.